

지역 비엔날레와 국제적 네트워킹 : 현대미술을 위한 가능성과 한계

매개(mediation)는 연속성의 문제이다: 더 많은 인내와 느림을 위한 호소

한스 D. 크리스트

슈투트가르트 뷔르템베르거서
쿤스트 페어라인 공동관장

Ars Baltica , Triennial of Photographic Art, Artgenda , Interdisziplinäre Biennale für junge Kunst im Ostseeraum, Manifesta , Europäische Biennale zeitgenössischer Kunst, Skulptur Biennale Münsterland, Tirana Biennale, biennale leuven , Biennale for Contemporary Visual Art in Leuven, Super! , Triennale zeitgenössischer Kunst, Mode und Design, Contour , Biennale für Videokunst, berlin biennale für zeitgenössische kunst, Artline, Internationale Foto-Triennale Esslingen, documenta, Werkleitz Biennale, transmediale , festival for art and digital cultur berlin, Videonale, Triennale Kleinplastik Fellbach, Grafik-Triennale Frechen, Triennale der Photographie, Quadriennale, Biennale d'Art Contemporain de Lyon, Arts le Havre , Biennale d'art contemporain du Havre, Biennale de Paris, Liverpool Biennial , International Festival of Contemporary Art, London Biennial, Whitstable Biennial, Brighton Photo Biennial, La Triennale di Milano, Big Torino, Biennale di Venezia, Biennale Adriatica di Arti Nuove, Baltic Triennial of International Art, Momentum , Nordic Festival of Contemporary Art, Internationale Biennale für Bildende Kunst Austria, Ars Electronica , Festival für Kunst, Technologie und Gesellschaft, steirischer herbst , Festival der Neuen Kunst, WRO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International Art Triennial, Lodz Biennale, The Young Artists Biennial, Bucharest Biennale, Periferic Biennial , International Biennial for Contemporary Art,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Biennial, Moscow Biennale of Contemporary Art, Bienal de Valencia, BIACS - International Biennial of Contemporary Art of Seville, Barcelona Art Report, Göteborgs Internationella Konstbiennial, Ljubljana Biennial of Graphic Art, Prague Biennale, IBCA - International Biennale of Contemporary Art, International Istanbul Biennial, Asian Art Biennale Bangladesh, The Shanghai Biennale, Beijing International Art Biennale, Bandung Biennale, CP Open Biennale, Artfocus, Israel, Echigo-Tsumari Art Triennial, Yokohama Triennale of Contemporary Art, Fukuoka Asian Art Triennale, Contemporary Art Biennale of Fukushima, Busan Biennale, Gwangju Biennale,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Taipeh Biennial, Sharjah International Art Biennial, Bienal Internacional de Arte de Buenos Aires, Bienal del Fin del Mundo, Biennale Ceará América, Bienal do Mercosul, Bienal de São Paulo, Bienal de Video y Nuevos Medios de Santiago, Bienal del Caribe, La Biennale de Montréal, Tranz <-> Tech , Toronto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ial, Bienal de La Habana, Bienal Iberoamericana de Lima, International Cairo Biennial, Luanda Triennial, DAK'ART , La Biennale de l' Art Africain Contemporain, The Johannesburg Biennial, Trans Cape, BIACS 2 Internationale Biennale Zeitgen. Kunst, Sevilla, Spanien, Taipei Biennale Taiwan, APT 2006 - Asien-Pazifik Triennale, Auckland Triennale, Sharjah Biennale Vereinigte Arabische Emirate..... to be continue

나는 언제나 큐레이터로서의 나의 일을 제도적이며 관리적인 규범조건의 새로운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 글 역시 '비엔날레'라고 하는 형식을 제도적 맥락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클루지(Cluj, 루마니아)에서 사진이 제작되고, 투즐라(Tuzla, 유고슬라비아)에서 비디오가 만들어지고, 프리슈티나(Prishtina, 유고슬라비아 세르비아 공화국)에서 과정미술(processual art)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사실에서 흥미로운 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치 클루지, 투즐라, 프리슈티나에서 전화나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드물다는 것과 같다. 통화 품질이나 수압 분석 따위가 흥미로운 수는 있겠지만, 아무도 그럴 여유가 없다.”

댄 퍼잡스키(Dan Perjovsc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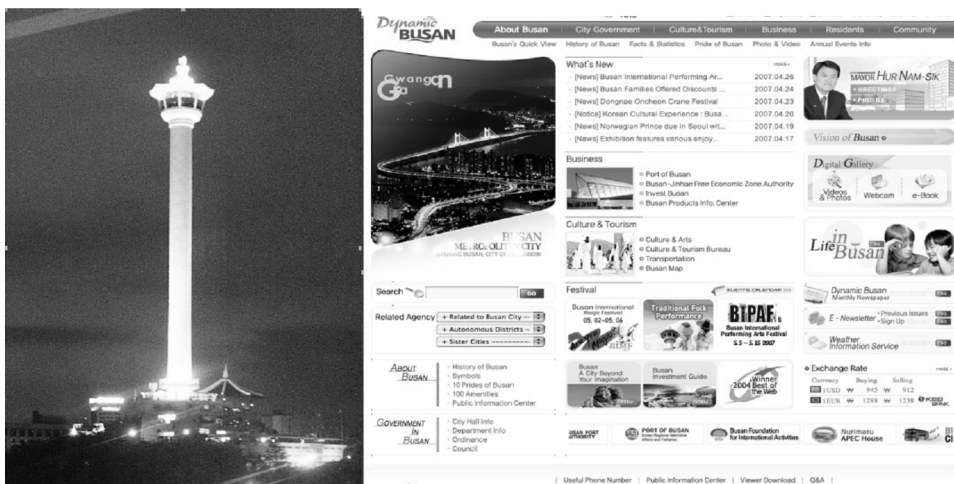
“비엔날레,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이 물음은 오늘날 우리가 ‘이 도시가 누구에게 속하는지’, ‘공공 장소, 공공매체, 공공재산이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궁금할 때 하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본질문을 약간 바꾸어 ‘누구에게 비엔날레가 속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려 한다. 이 물음에 좀 더 자세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먼저 비엔날레라는 현상을 새롭게 분석해 보는 것이 좋겠다. 현재 세계적으로 약 500명에서 1200만 인구를 지닌 마을이나 도시에서 대략 100~120개의 비엔날레들이 개최되고 있다. 비엔날레의 예산규모와 국제적 관심 역시 편차가 크다. 비엔날레의 95% 정도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만들어졌다. 비엔날레는 모든 대륙과 지구의 구석(세계의 끝 비엔날레 Bienal del Fin del Mundo, 화이어랜드, 아르헨티나) 어디에서나 찾아 볼 수 있다. 비엔날레는 때로는 아주 고전적 형태인 국가관 형식으로 개최되며, 때로는 장르별(비디오, 디자인, 조각 등등)로 개최되기도 한다. 비엔날레는 ‘국제전’(특히 1970년대 동유럽에서 개최된 비엔날레)이나 세계 박람회(베니스, 상파울로, 파리)라는 이상적인 개념에서 태어났다. 물론 최근 25년 사이에 만들어진 비엔날레들은 대부분 도시마케팅과 글로벌 경제,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통한) 세계적인 지식의 분배, 새로운 미술시장의 생성 그리고 198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직업으로 동시대 예술 무대에 등장한 수많은 독립 큐레이터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 사이에서 복잡적이고 절충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례없이 붐을 이루며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미술박람회와 그 활력의 여파로 많은 미술관들이 신축되고 있는 현상과 결부되어 있는데, 현대 조형물로 간주되는 미술관들 역시 같은 건축가 집단에 의해서 설계되었다. 이 거대한 기계는 상징적 재현, 동질적인 가치 체계, 문화적 협력에 의해서 유지된다. 이에 대한 논리적인 귀결은 혁신이 아닌 반복적 재생산이며, 고유함이 아닌 표준화이고, 개혁이 아닌 보수주의이고, 사회적 중요성이라기보다는 영리추구예술의 자아도취이며, 실험적인 개방성이 아닌 시장의 적합성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그 누구도 비엔날레가 도대체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냐고 물을 수 없다. 광고효과는 도시로 돌아가며, 구체적인 가치상승은 미술시장과 큐레이터, 예술가들에게 속한다. 협찬·후원사는 광고포스터에 명기되고, 관객에게는 수동적인 관람의 몫이 돌아간다. 기회주의적 입장에서 비평적인 내용이란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되는 전시기간, 세계적으로 유사한 시장에 대한 관심과 강력하고 상징적인 표현의 조건들과 같은 비엔날레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제약 안에 갇히게 된다. 이것은 단지 비엔날레 운영과 관련된 현상 일뿐 아니라 도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본주의 그리고 정치적 파트너의 관료주의의 표현이다. 전자는 전유(appropriation)를 통해 점차적으로 모든 민주적 자유공간을 없앤다. 후자는 민주적으로 보증하는 시민적 권리를 전자에게서 멀리 떼어 놓는다. 이들의 파트너쉽은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부패에 의해 조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누구에게 비엔날레가 속하는가’라는 물음이 생긴다. 그리고 또한 자연스럽게 ‘누구를 위한 비엔날레인가’라는 질문이 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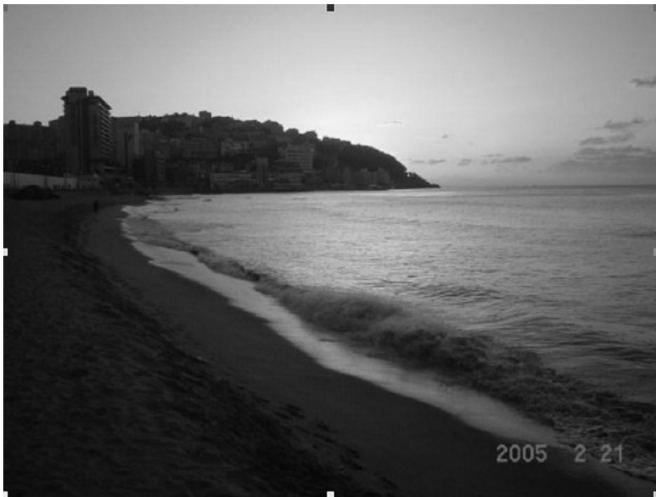
따라서, 이 물음은 비엔날레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비엔날레라는 행사가 자체 시스템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활용하는 가를 묻는 것일 수 있다. 비엔날레는 현대미술의 지역적 연계와 국제 네트워크 안에서 지속적이고 비판적으로 개입하고, 매개하며, 표현하는 국제적인 행사이다. 이것은 비엔날레가 한편으로는 전형적인 규범으로써 외부의 예술과 무관한 정책들도 만족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비엔날레 사이 기간뿐만 아니라 비엔날레와 병행하여 효과적인 문화사업을 가능케 하는 용도로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하기도 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앞으로는 2년마다 돌아오는 2008 / 2010 / 2012 비엔날레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2010년과 2012년 사이 기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엔날레의 기능을 6년에서 10년 동안 심사숙고 하고, 비엔날레의 고유한 활동(예술적 생산, 사회적 참여, 도시 환경에서 공동체 형성과 그 활동)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에 걸쳐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을 모르는 순진하기만 한 생각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세계화된 예술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전망

옆에 세계화된 예술 활동의 다른 그림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1015년 사이에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혹은 동유럽 등 세계 도처에서 새로운 독립적인 플랫폼이 마련되었다. 이 플랫폼은 대단히 효율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이 네트워크 안에서 독립적인 경제시스템을 갖추어, 좋은 활동을 통해서 돈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엔날레의 존재는 주로 지역적 동기와 필연성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새로운 플랫폼은 이를 넘어 지식의 보고인 대학과 같은 제도들과도 연계한다. 이러한 플랫폼은 또한 예술사업 영역에 있는 기관들을 사용하여 비엔날레의 내용을 소개하는 데에도 주저함이 없으며, 세계화와 관련해서도 참여적이고, 개방적인 과정을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매우 효율적이며, 유연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효과적인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 그룹으로는 "도큐멘타 X(Documenta X)"의 하이브리드 워크스페이스(Hybrid Workspace)가 있다). 이 같은 플랫폼은 사회학, 철학, 정치학, 도시학, 대중 매체학 등과 같은 서로 다른 학문분야가 어우러지는 학제적 경향을 띠고 있다. 이것은 현대 미술이 예술작품이 아니라 그 과정성과 미술을 둘러싼 현실과 현실 사이의 의사소통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미술가들에게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가 바로 출발점이다. 이를 통해 1990년대 초반 등장한 "서비스 미술"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현상들 사이에서 변화된 역할을 하고 있는 미술을 만들어내었다. 그것이 통신기술 영역에서이든, 혹은 "고전적인 작품의 제작"이든, 혹은 열린 체계로서의 과정예술이나 개념미술이건 간에 말이다.

한 지역 혹은 특정한 맥락을 위한 이 같은 예술적 접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큐레이팅 된 것 보다는 매개된 제도적 맥락이, 스펙타클한 볼거리가 아닌 연속성이, 위계적 구조가 아닌 민주적인 구조가, 표현 보다는 경쟁력의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부산에서 비엔날레를 개최한다고 할 때,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부산인가? 누가 부산인가? 부산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부산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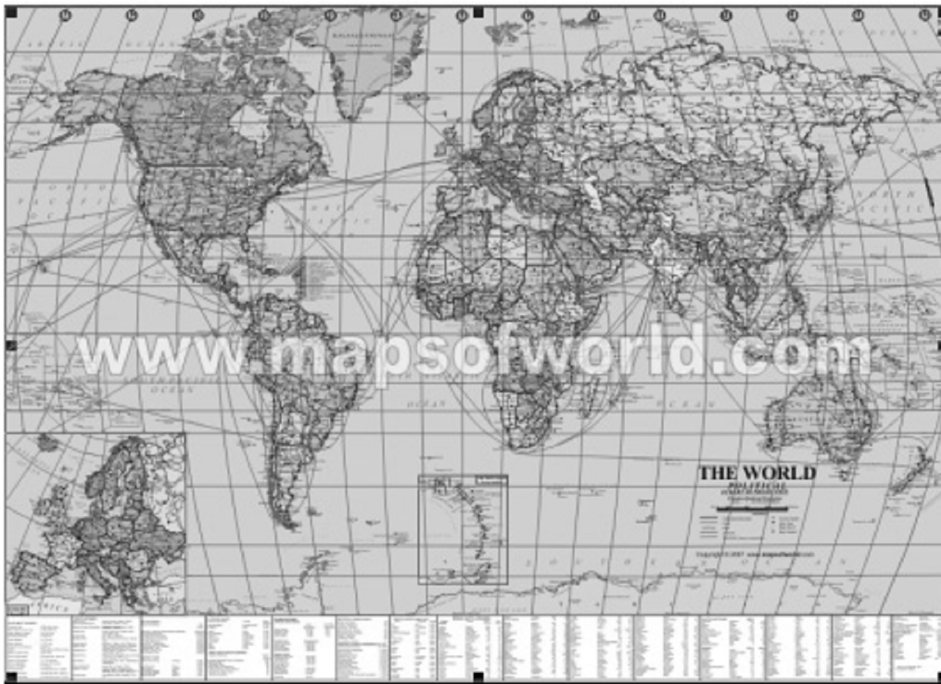


사람이 없는 장소, 익명의 집들 - 이런 그림들에서는 “거대함”, “재현” 외에는 어떤 것도 알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옳다. 물론 그로부터 무엇인가를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도 옳다. 사람들이 이런 사진을 보면, 이곳에서 비엔날레를 개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거시적 구조에서 미시적인 구조로 관점을 전환시키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발견하고, 인간을 발견한다. 그리고 판단을 먼저 내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알게 된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뒤로 물러설 수 있고,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특수한 것을 유추해 낼 수 있으며, 그리고 또 다시 구체화시키기 위해 뒤로 물러설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약간 장황한 설명은 우리가 이러한 거대 구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여전히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에 대한 요청할 때, 이러한 이야기들이 불가능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어떻게 비엔날레가 조직되며, 어떻게 비엔날레가 지역주민들과 연결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비엔날레 같은 행사가 세계적인 맥락 안에서 다시 반영되는가? 이미 이에 대한 답으로 오랫동안 발전된 형식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지속적인



시간과 연속성이다!

1. 워크숍

- a. 예술가, 큐레이터, 도시계획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등과 연계한다.
(지역적, 국내적 및 세계적 연계)
- b. 지역 주도권, 대학과 같은 제도와의 연계한다.
- c. 개방 문서실 형식으로 상세한 다국어 도큐멘테이션(데이터뱅크)을 운영한다

2. 연구집단

- a. 워크숍을 통해 서로 다른 목표에 합의한 연구집단 구성한다.
- b. 연구집단 내의 지역분과는 연구와 자료 아카이브를 육성한다.
- c. 연구집단 내의 국제분과는 지역적 환경 안에서 워크숍의 내용을 소개한다.
이것은 각기 고유한 지역적 맥락에서 발전된 다른 견해를 보충한다.

3. 비엔날레에 참여한 모든 작가들을 위해, 행사의 전체 내용을 소개하는 데이터뱅크의 개발

- a. 모든 참여자에게 이런 내용을 정기적으로 전달한다.

4. 공공예술 및 연구, 그리고 도시행태에 초점을 둔 국제적인 학제교류의 지원프로그램 신성

- a. 이것은 창작지원금이다.
- b. 이를 통해 제작된 창작물은 비엔날레의 것이다.
- c. 지원금은 부산에 있는 건물이다.
- d. 지원금의 수혜자는 비엔날레 조직과 밀접하게 교류한다.
- e. 지원금에는 여행경비가 포함되어, 비엔날레 조직에 참여한 국제기구와의 교류도 가능하게 한다.
- f. 지원금은 행사의 조직과 실행에 관계된 공간에 제공한다.
- g. 지원금 수혜자는 지역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관리한다.
- h. 정기적으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지원금 수혜자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다.

이상은 행사와 마케팅 문화의 영역으로부터 비엔날레의 기능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불과하다. 서서히 개방적인 현대 제도가 생긴다. 지역적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지식이 생성된다. 이러한 지식은 개방된 자료로,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로써 비엔날레라는 행사는 통합된 상위의 제도적 모델로 이해된다. “비엔날레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미 지역과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제도적, 지능적 규범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계획(실제로는 아니지만)이 쓰여 질 수 있고, 만들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다!